

평행한 경고 - 제1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인류에 대한 최후의 경고 이해

Jeff Pippenger

2023-08-08

“때가 가까웠다”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린다. 인류를 위한 최후의 경고 메시지는 인류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주어지며, 그 최후의 메시지는 성경의 여러 예언에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최후의 경고 메시지가 세 천사로 상징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의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뒤에 또 다른 천사가 따라오며 말하였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는 그 성이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어진 것이라.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6-12.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로 그 동일한 메시지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나는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밝아졌다. 그는 힘있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바벨론, 그 큰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우리가 되었도다.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요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1-5.

예언적 역사의 흐름, 다시 말해 18장에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천사로 상징된 사건들의 연속은 심판의 종결과 은혜의 시기 종결,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킨다. 18장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는 14장의 세 천사가 나타내는 예언적 역사의 흐름과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게 예언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주셨으며, 그들의 사역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며, 뒤이어 나오는 이 기별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의 경고를 선포한다. "이 일 후에," 요한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조명 속에는 세 기별의 빛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1888년 자료, 803, 804.

제14장에서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세 천사는, 짐승의 표와 은혜의 시기 마감으로 끝나는 전 세계적인 기별을 상징한다. 제18장에서는 그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비추어지며, 그의 기별 역시 은혜의 시기 마감으로 결론을 맺는다.

14장에서 세 천사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18장에서 내려오는 천사로도 표현되는 그 메시지는 같은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두 가지 예증이다. 성경에는 굳더더기가 없고, 낭비되는 것도 없다. 요한이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 이상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반복과 확대'라고 불리는 성경적 규칙, 곧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을 보여준다. 두 가지 예언적 역사 흐름을 함께 결합하면, 서로를 떼어 놓고 각각만 따로 고려할 때에는 어느 쪽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진리들이 드러난다. 오늘날 같은 사건의 두 증인을 법정에서 세워 증언하게 하면, 그들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념에 따라 서로 정반대의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증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일치하며,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가지 예증은, 말라기서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다시 옴으로 표현된 바로 그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모두 은혜의 기회가 끝나기 전에 주어지는데, 이는 이 세 가지 예언의 줄기에 담긴 경고가 단순히 은혜의 기회가 끝나기 전에 주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고들 각각의 기준점, 다시 말해 주제가 바로 은혜의 기회의 끝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거나 예증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도,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 그리고 말라기서의 엘리야 예언과 동일한 경고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의 흐름은 서로 병행한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한편 성경 예언에 관한 정보에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전개되는 사건들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사건들의 윤곽을 제시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묘사이다.

이러한 생각들과 관련해 고려할 만한 원칙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모든 예언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한다는 것으로, 바로 그때 유예 기간이 마감된다는 점이다.

옛 선지자들마다 자기들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를 더 엄두에 두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당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11. '그들이 섬긴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니, 곧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 의해 너희에게 전해진 것들이며, 이런 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12. . . .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 그 보화들을 모아 한데 묶어 두었다. 구약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되풀이되어 왔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선택된 기별, 3권, 338, 339쪽.

성경의 모든 예언적 메시지는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규칙은,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또한 '묘사된 사건들에서'도 '형성하신' '사안들'을 식별하는 또 다른 규칙과 결합될 때, 어떤 예언이든 그 시작 부분의 예언적 사건들이 그 예언의 끝부분의 예언적 사건들을 예표하고 그와 병행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사업의 역사상 일찍이 없던 정도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의 권세와 교황권에 관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할 것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바에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주심에 있어서도, 묘사된 사건들에 있어서도, 인간의 도구는 눈에 띄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게 하고,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도록 모든 일을 그렇게 이루어 오셨다. 다니엘서를 읽어라. 그곳에 나타난 여러 왕국들의 역사를 조목조목 되짚어 보라." Testimonies to Ministers, 112.

그 "성령께서 예언이 주어지는 것과 묘사된 사건들 모두에서 사안들을 그렇게 형성하셨다." "예언이 주어지는 것과 묘사된 사건들"에서 "사안들"은 "성령"에 의해 "그렇게 형성"되어, "예언이 주어지는 것"과 "묘사된 사건들"이 모두 영감된 것으로 인정되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적 예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요한은 가브리엘에게서 예언을 받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 그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오늘날 세상에서 블랙 사이트라고 부를 만한 방식으로 유배되었다. 그 역사 속에서 요한은 관타나모 만 수용소의 어느 수감자만큼이나 인류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요한은 그 환상이 자신이 주의 날인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드리던 중에 일어났다고 밝힌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마태복음 12:8.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그는 뒤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9-11.

요한과 그의 주변 환경, 그리고 언급된 상황은 그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곧 '예수의 증언'인 성경과 엘렌 화잇의

저술을 함께 믿는다는 이유로도 박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는 자기 뒤에서 큰 음성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돌아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세상 끝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을 대표하는데, 그들 역시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다.

모든 예언의 흐름은 세상의 종말에 서로 평행을 이룬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한데 모여 결말을 맺는다." 사도행전, 585.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모든 선지자는 요한이 세상 끝의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한 바와 일치한다. 요한은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그에게 지시를 주었다. 이사야 또한 지시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사 기다리시며, 또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사 높임을 받으시리니,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너는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네게 크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지라도, 네 스승들이 다시는 구석으로 치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네 눈이 네 스승들을 보리라. 또 네 귀는 네 뒤에서 이르기를 ‘이것이 그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 하는 말을 들으리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향할 때에도 왼쪽으로 향할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사야 30:18-21.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그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 주는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그 음성을 들을지 듣지 않을지 결정해야 한다. 요한과 이사야가 대표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그분을 기다리는 세상 마지막 때의 사람들인데, 이사야는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1798년에 시작된 밀러 운동의 역사로부터 일요일 법령에서 재림운동의 은혜의 시기가 닫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다. 약속은 심판 기간 동안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대표된다. 열 명 모두 잠들었고, 한밤중에 위기가 닥쳐 잠든 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한 부류는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그 음성을 보려고 뒤돌아섰고, 다른 한 부류는 뒤돌아서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또한 재림교인들의 경험을 보여 준다. 대쟁투, 393.

요한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재림교인들을 대표한다. 그들이 요한처럼 ‘뒤에서 들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는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사야의 증언 속에서 주어진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의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킬 때에도, 왼쪽으로 돌이킬 때에도, 그 길로 행하라.” 다니엘 12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세상 끝에서 지식이 증가함을 이해하는데, 이는 그들이

봉인이 풀린 생명을 주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이리저리 왕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하겠고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우리가 살피는 선지자들은 심판이 결론에 이르고 은혜의 시기가 닫히는 역사 속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을 대표한다. 슬기로운 처녀들로 나타난 이들은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여기로 행하라"는 음성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돌이킬 때 그 길에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책의 봉인이 풀릴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이리저리 왕래함"은 성경 연구를 상징한다. 자연의 이치는 달리려면 먼저 걷는 법을 배워야 함을 알려주고, 이사야의 증언은 네 뒤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구약(왼쪽)으로 돌이키든 신약(오른쪽)으로 돌이키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그가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펴면 그분이 그의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세상 끝에 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성경(왼쪽)을 펼칠 때에도 예언의 신(오른쪽)을 펼칠 때에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레미야의 증언이 더해질 때 걸어야 할 길은 더욱 구체적이 된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는 행하지 않겠다 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이르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열국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렸음이라. 예레미야 6:16-19.

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있다. 한 부류는 모든 '길들'을 살펴보고 걸어갈 '옛 길들'을 선택한다. 그들이 다른 가능한 모든 '길들' 가운데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들에게 '이것이 그 길이니 그리로 행하라'고 알려 주었다. 요한은 뒤에서 들려오는, 곧 '옛 길들'에서 오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대표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보고, 그 길로 행하라.' 예레미야 6:16.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 곧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과 계시로 우리 사역의 시작에 놓인 그 기초를 허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난 오십 년 동안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세워 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고 이미 놓인 것보다 더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큰 미혹이다.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아무도 놓을 수 없다.

과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세우고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것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가? 곧 무너졌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 제자들도 사람들의 말을 상대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거짓된 이론들을 들어야 했고, 그런 다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뒤 '이미 놓인 것 외에는 다른 터를 아무도 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굳게 서야 하지 않았는가? 고린도전서 3:11.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이 백성에게 보내어져,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내어 현재의 진리의 분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였다. 거룩한 불로 입술이 만져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별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선언은 선포된 진리의 진정함에 인을 쳤다." 증언, 8권, 296, 297쪽.

그러나 예레미야의 반열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으며, 그가 그들을 "회중"이라고 지칭한다. 그들은 새 신앙을 상징하는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집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며, 요한은 바로 그 동일한 교회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른다.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옛 길로 행하라는 요구에 반역하고 파수꾼의 나팔 경고를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악한 회중'이라고 지칭하는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어떻게 다루실지는 성경 예언의 주제이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들이 왜 버림받는지 말하면서 '악한 회중'의 특징을 밝혀 준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겠다. 호세아 4:6.

그들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된다. 이는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리는 메시지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직접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 출애굽기 19:5, 6.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9, 10.

베드로는 이 구절들에서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가는 전환을 다룬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혼했을 때, 주님은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 둘 다 주님과 혼인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제사장 나라로 여겨졌다.

제사장으로서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한때 언약의 백성이었음을 의미한다. 재림교 역사의 시작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 광야의 교회는 종교개혁에서 나왔지만 밀러 운동의 기별을 거절했고, 그리하여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었다. 최종적인 분리는 둘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졌고, 그 선포는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딸이 아니라 바벨론의 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직후 한밤중 외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새 신부를 언약의 혼인으로 부르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상징이었던 두 돌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고, 영적 현대 이스라엘의 두 판은 하박국의 두 판으로, 1843년과 1850년의 도표로 대표된다. 영감이 거듭 라오디게아라고 지목한 언약의 백성은 옛 길을 버리고, 뒤에서 들리는 음성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반복한다. 왜 그가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주의의 경험을 보여주는 열 처녀의 비유는 두 번 성취되는데, 한 번은 재림주의의 시작에서, 또 한 번은 그 끝에서이다. 화이트 자매는 그 비유가 문자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고, 또한 그 비유는 셋째 천사와 마찬가지로 항상 현재의 진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 곧 그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던 그 비유를 상기하게 된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때의 끝까지 계속해서 현재의 진리로 남을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1843년의 실패한 예언과 1844년 10월 22일의 정확한 예언 사이에서 그 비유에서 말한 기다림을 성취했다. 이 역사에 관한 예언적 세부사항은 많고 중요하지만, 나는 단지 엘렌 화이트 자매가 방금 말했듯이 열 처녀의 비유가 셋째 천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798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였다.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한밤중의 외침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가 심판의 종결을 선포할 때, 한밤중의 외침에 대한 선포가 다시 한 번 반복될 것이다.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여 바벨론의 딸들이 되었다는 인식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임한 것이었고, '글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던' 그 비유에서의 지체하는 때의 시작이었다. 주님은 1843년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처녀들을 시험하고 복 주시기 위해 지체하셨다. 개신교 교회들을 바벨론의 딸들로 지목하는 둘째 천사의 선포는, 여전히 그 타락한 교회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나와서 밀러파와 그들의 예언 이해에 동참하라는

부름이었다. 엑서터 야영대회에서 새뮤얼 스노우는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했고, 한밤중의 부르짖음 기별이 해일처럼 온 땅을 휩쓸었다. 그리하여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때 셋째 천사가 임했다.

이는 초기 역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더 관련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요점을 추려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이어가겠습니다.